


##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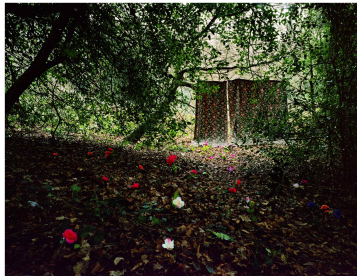
작가명	신미경	작품명	페인팅시리즈	제작연도	2014
재료	비누, 프레임			사이즈	가변설치
상세 정보	<p>신미경(1967) 작가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데 있다. '비누를 조각하는 작가'로 불리는 신미경은 20여 년 동안 과거의 문화적·상징적 작업들을 현대미술로 가져오거나, 액체처럼 흐르는 시간을 덩어리로 만들어 시각예술로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p> <p>경기도미술관의 소장 작품 '페인팅시리즈'는 기존의 회화와는 다른 측면에서 비누로 회화처럼 생긴 조각을 만든 것이다. 2014년 이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페인팅시리즈'는 명작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프레임만을 남기고, 그림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처음부터 소멸성을 가지고 있는 비누를 채워 넣음으로써 미적 가치의 견고함에 대해서 의문을 표현하고 있다. 액체의 비누가 프레임 안에서 응고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은 계속 변화한다. 시간을 덧입으면서 새로운 그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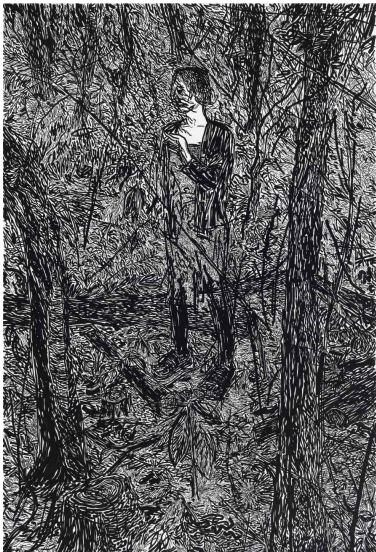
작가명	박경률	작품명	미팅플레이스	제작연도	2018
재료	캔버스에 오일, 종이에 오일, 포장된 회화, 세라믹, 나무봉, 스폰지, 마스킹테이프, 오렌지, 스티로폼에 석고, 아크릴판, 공산품, 클레이, 나무프레임			사이즈	가변설치
상세 정보	<p>2차원의 그림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 '조각적 회화'라는 자신만의 작업방식을 보여주는 작가 박경률의 작품은 전시장에서 보여 지는 모습으로는 감상자들에게 설치작업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녀는 다양한 이미지 기호들을 풀라쥬하면서 만들어지는 내러티브를 통해 무의식의 영역을 시각화하는 그림을 그리는 회화작가이다. 이미지의 위치, 구성, 틀과 같이 그림을 이루는 외부적 요소만으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p> <p>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들 각각이 오브제이다. 2차원에 놓여진 오브제들(캔버스에 올려진 물감덩어리와 붓질들)과 3차원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오브제들(작가의 추상적 행위의 결과물)은 각각의 위치에서 관람객들에게 읽혀진다. 이러한 읽기 행위가 그림을 보는 행위이다. 그림을 보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을 지닌 'A Meeting Place' 는 회화를 보는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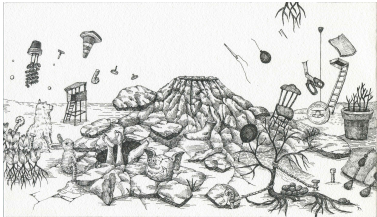
작가명	고산금	작품명	동아일보 사설(2007.01.12.A36.A35)	제작연도	2007
재료	패널에 인조진주, 접착제, 아크릴 물감			사이즈	63.5×91.5cm
상세 정보	<p>고산금은 자신에게 여운과 생각을 남긴 글의 부분들을 꼼꼼히 계산해 음절 하나에 진주, 또는 스테인리스 구슬 한 알로 대치시키며 소통을 위한 공통의 기호인 언어를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사적인 기호체계로 전이시킨다. &lt;동아일보 사설(2007.01.12.A36.A35)&gt;(2007)은 2007년 1월 12일자 동아일보의 사설을 발췌하여 기사가 실린 지면을 인조 진주알로 대체시켜 제작한 작품이다. 사설의 내용은 흥미롭게도 북한과 핵, 정치,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현대의 가족, 한국의 교육실정, 강장제 광고 등 한국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가는 텍스트가 담지하고 있는 진실과 오독의 가능성, 언어가 갖고 있는 투명하면서도 동시에 불투명한 특성, 의미의 폭로와 의도적 은폐와 같은 양면성을 정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함축적 불가독(不可讀)의 텍스트이자 시각 언어로 재탄생시킨다.</p>				

작가명	임선이	작품명	섬의 그늘에	제작연도	2008
재료	부조, 합성수지, 나무			사이즈	각 66x80 (2점)
상세 정보	<p>임선이 작업은 인간의 근원적인 소외와 결여를 내면화하고, 개인적 사회적 의미가 개입된 흔들리는 시선을 통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의 작업은 산과 꽃과 같은 대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지각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미세한 움직임, 그 내부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모습에 주목한다. 작가는 실재계의 그것과도 같이 모호하고 이해될 수 없고 부조리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무엇을 작업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임선이의 열린 풍경에 끌리게 되는 것은 완결적이지 않고 상실과 소외, 끊임없는 흔들림과 동요를 내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선을 마주하기 때문이다.</p> <p>&lt;섬의 그늘&gt; 등에서 섬의 형상으로 커팅된 각각의 모델링은 네트워킹으로 직조된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타자와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도시인의 내적 소외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어디에도 정박하지 못하고 망망대해를 부유하는 섬의 모습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응시, 견제하며 마치 개별적인 섬으로 존속하는 인간 개체들과 닮아있다.</p>			 	

작가명	정정엽	작품명	<최초의 만찬> 2,4,5,6,7	제작 연도	2019
재료	캔버스에 오일			사이즈	50× 100cm/ 116.5×80cm/150×227cm/ 162×130cm/150×227cm
상세 정보	<p>정정엽은 1985년부터 18회의 개인전과 많은 기획전, 그룹활동을 통해 여성노동, 소수자와 생명의 공존 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왔다.</p> <p>&lt;최초의 만찬&gt; 시리즈는 그동안 여성의 시각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 작업을 해오던 것에서 본격적으로 여성 인물을 다루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작품들이다. 한국 사회에 페미니즘 화두를 던진 주요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은 &lt;최후의 만찬 2&gt;는 열두명의 여성들이 직사각형의 긴 식탁에 나란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며 활짝 미소를 짓고 있다. 나혜석을 비롯해 시인 김혜순, 서지현 검사, 이토시오리 기자 등 작가의 삶에 영향을 준 인물들 외에 작가가 태국에서 만난 트랜스젠더 여성과 젊은 여성예술가, ‘평화의 소녀상’, 게릴라 걸즈(페미니스트 여성예술가 단체) 등 여성으로서 사회적 금기와 경계를 넘어선 인물들을 초청해 최초의 만찬을 열고 있다.</p> <p>‘12’라는 숫자와 만찬이라는 단어, 그리고 긴 식탁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익숙한 구도와 더불어 이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차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소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운 이 역사적 만남을 성사시킨 작가는 지속적으로 여성인물 시리즈를 발표해가며 스스로가 스스로의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동시대 여성들을 위로하고 있다.</p>				2
					4
					5
					6
					7

작가명	박형근	작품명	무제 #4	제작연도	2003
재료	라이트젯 C 프린트, 에디션 2/5			사이즈	100 x 125cm
상세 정보	<p>박형근은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사진 매체의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작가의 주관적인 본능에 의해 설정되고 연출한 사진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익숙한 풍경 사이로 꿈이나 기억 속의 한 장면과도 같은 몽환적인 연출을 더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사실과 연출, 실제와 허구, 자연과 도시, 원시와 문명의 경계에서 의도적으로 연출한 화면 구성을 통해 의식과 감각의 경계를 흔들어 현실 이면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다.</p> <p>&lt;무제 #4&gt;(2003)는 그늘진 숲속에 흩뿌려진 하얀 꽃과 붉은 꽃, 그 너머로 빛을 막아서서 걸어놓은 꽃무늬 천을 화면에 담은 사진으로 런던유학 중 촬영하였다. 풍경 속에 드러나는 숨죽이는 적막과 조작되고 변형된 듯한 오브제와 색채는 관객으로 하여금 암시적인 내러티브와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며 상상의 시공간을 제시한다.</p>				

작가명	박광수	작품명	검은 숲속	제작연도	2015
재료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사이즈	세로 290 × 가로 197cm
상세 정보	<p>&lt;검은 숲속&gt;(2015)은 박광수 작가가 꾸준히 탐구해온 '소멸'과 '종말'의 주제를 관통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캔버스를 가득 메우는 무수한 검은 선은 존재 그 자체보다는 존재를 해체하는 조형적 요소로서 작용한다. 그와 동시에 역동적으로 겹쳐진 검은 선은 얹히고설킨 숲속의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뾰뾰하게 들어선 선의 공간에서 화면 중앙의 남성은 인물과 풍경의 경계를 넘나들며, 보는 이로 하여금 내밀한 자아성찰에 빠지게끔 유도한다.</p> <p>박광수 작가는 드로잉을 기반으로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회화, 애니메이션, 가구의 영역까지 매체의 한계를 넘어 도전하지만, '소멸'과 '종말'이란 한결같은 주제를 탐구하며 작품에 그 깊이를 더해간다. 이러한 작가의 행보는 비슷한 연배의 청년작가들과 비교 시 한층 두드러지며, 혁오의 &lt;툼보이&gt; 뮤직비디오에도 제작 참여하며 대중성까지 획득하였다. 이는 경기도미술관 2019 크로스장르전 《코끼리, 그림자, 바람》에 전시한 &lt;검은 바람, 모닥불 그리고 북소리&gt;(2015)에서도 관람객의 큰 호평을 얻은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작가지만, &lt;검은 숲속&gt;(2015)은 작가의 작품 세계의 주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작품이다.</p>				

작가명	박미라	작품명	시끄러운 유령들	제작연도	2019
재료	드로잉 애니메이션, 2채널비디오, 흑백, 사운드			사이즈	2분 29초
상세 정보	<p>&lt;시끄러운 유령들(Poltergeist)&gt;은 경기도미술관과 경기창작센터가 주관하는 협력전시 '퀀텀점프 2019'의 《밤물결》전에 출품한 작품으로, 작가가 경기창작센터에서 입주기간 중 겪은 불면증과 기이한 감정의 경험 등 개인적 서사에 기인하여 완성되었다. &lt;시끄러운 유령들&gt;은 예민한 감수성이 극한으로 고조되는 '밤'에 관한 이야기다.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작품제목은 '폴터가이스트'라는 독일의 유령설화에서 착안한 것으로, 유럽의 국가들에서 주로 사춘기 소년소녀를 따른다는 정령으로 믿어져온 존재이다.</p> <p>박미라의 동화적 상상력은 검은색의 펜드로잉 8점과 2채널 비디오 설치를 통해 폭 12m가 넘는 넓은 전시실 벽면에 펼쳐졌다. 연기를 내뿜는 분화구와 뿌리째 드러난 나무, 여러 갈래로 달아나는 풍선과 삼각 콘 등 자연과 인공이 뒤섞인 비현실적 풍경 사이로 널려진 분절된 신체부분들이 불안감을 고조시킨다. 천천히 부유하거나 매달림을 반복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는 중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몽롱한 화면을 연출한다. &lt;시끄러운 유령들&gt;은 펜드로잉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둠이 깔린 후 도사리는 내면의 공포와 관음, 우울 등 예리하고 요동치는 감정을 표현한다. 작가가 최근 연구하고 있는 '움직이는 벽화'의 실험이기도 하다.</p>				

작가명	최평곤	작품명	가족	제작연도	2007
재료	철에 대나무 엮기			사이즈	1,050×600×350cm
상세 정보	<p>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최평곤(1958-)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공주 우금치에 거대한 '대나무 인간'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줄곧 대나무를 씨줄, 날줄로 엮은 대형 공공 설치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후 평창비엔날레, 프로젝트 대전, 양평환경미술제 등의 수많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p> <p>최평곤은 2000년대부터 대나무를 엮는 방법으로 다양하고 거대 한 인체를 표현 해왔다. 자연과 인공, 생태와 문명을 넘나드는 명상적 메시지를 던지는 그의 거인상들은 때론 가족을 보듬어 안고, 때론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듯 주먹을 움켜쥐고 서 있으며, 때로는 생명의 어머니인 바다에서 걸어 나오기도 한다. &lt;가족&gt;(2007)은 가운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좌우의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고요함 속에 무한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모성애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p>				

작가명	강익중	작품명	5만의 창, 미래의 벽	제작연도	2008~ 2018
재료	혼합재료			사이즈	10 X 72m
상세 정보	<p>강익중(1960-)은 '3인치의 작가'로 불리는 현대 미술 작가이다. 가난한 유학 시절, 아르바이트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하는 방식으로 3인치 정방형 캔버스를 사용하였고, 작은 캔버스들을 모아 설치한 작품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p> <p>〈5만의 창, 미래의 벽〉(2008-2018)은 대한민국 5만 어린이의 꿈을 3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완성한 어린이 벽화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모두에게 바치는, 모두를 위한 그림"이라고 하였다. 작가는 2008년 9월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그림은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창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작가인 자신이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아이들의 그림으로 임진강에 다리를 놓고, 전 세계인들은 우리가 하나 됨을 보고, 증거하고, 남북은 축제를 열고, 임진강에 다리가 놓이는 날까지 계속 그림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였다. 〈5만의 창, 미래의 벽〉은 경기도미술관과 강익중 작가의 협업 하에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 공공미술작품이 미술관의 소장품이 되고,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이어가는 활동들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공공미술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라 할 수 있다.</p>			